

보도 일시	2022. 7. 12.(화) 15:00	배포 일시	2022. 7. 12.(화) 15:00
담당 부서	기상서비스진흥국 기상융합서비스과	책임자	과 장 정성훈 (042-481-7490)
		담당자	사무관 정선애 (042-481-7497)

기상청-한전 기상·전력 빅데이터 활용한 전력공급 협력

- 기상과 전력 빅데이터를 융합하여 안정적인 전력 공급 관리 -
- 국민 체감형 기상·전력 융합서비스 연구개발 공동 협력 추진 -

- 기상청(청장 유희동)과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는 7월 12일 기상청에서 기상과 전력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기여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기상·전력 융합서비스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 기상·전력 자료(데이터)를 활용한 전력수요 예측 정확도 향상 공동 연구개발, ▲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전력설비 피해 사전 예방체계 구축, ▲ 전력·기상 자료(데이터) 공유 및 국민 체감형 융합서비스 개발 등이 있다.
-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기상청의 맞춤형 고해상도 기상기후정보와 한국전력공사의 전력 빅데이터 분석역량을 결합해 기상·전력 융합 콘텐츠 개발과 대국민 서비스 제공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기상청과 한전은 작년 12월부터 기상 및 전력 빅데이터를 융합하고 분석하여 여름철 아파트 전력설비 과부하 정전을 예방하기 위한 「전력사용량 예측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 전력사용량 예측 인공지능 서비스는 개별 아파트의 전력계량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학습하고, ‘전력기상지수’와 융합분석하여 향후 48시간까지 예상 최대수요 정보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참고) ‘전력기상지수’는 기상변화에 따른 전력사용량의 증감을 국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기상청의 맞춤형 기상정보를 활용하여 전국을 1,600여개 격자로 구분한 지역별 전력사용량 증감을 지수화한 것임

- 기상청은 ‘전력기상지수’를 개발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에이피아이(API)로 제공함으로써 한국전력공사에서 전력사용량 예측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지원하였다.
- 아파트 전기안전관리자, 관리사무소는 이번 서비스를 활용하여 당일 최대 전력사용 시간대 및 전력사용량의 예측과 신속한 대책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전력사용량 예측 인공지능 서비스는 7월 18일부터 응용프로그램(한전 「과워 체크」)과 누리집(<https://check.kepco.co.kr>)에서 이용 가능하다.
- 이정환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공공 융합서비스를 계속 발굴하여 코로나와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국민들에게 힘이 되는 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 붙임 행사 사진



| 기념사진(왼쪽에서 다섯번째 이정환 기상서비스진흥국장) |



| 협약식(왼쪽 이정환 기상서비스진흥국장) |